**치명적인 함정을 피하라 (Avoiding The Deadly Traps) - 릭 조이너**

****

† 치명적인 함정을 피하라 (Avoiding The Deadly Traps) - 릭 조이너

우리의 목적 성취에 방해가 되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들 중의 하나는

우리가 그 임무를 위해 합당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려 하는 것이다.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의 은혜와 지혜와 힘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요구 되어진다.

둘째로 치명적인 리더쉽의 함정은

어떠한 것들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탁월하게 성취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성실함을 가지고 성취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는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뒤에 처지게 한 교회 지도자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라.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그로부터 흩어져서 그를 부인하였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이 그 분에서 던진 가장 최후의 질문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신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들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혹은 우리가 완벽한 리더쉽을 가질 때까지,

혹은 우리 주위에 완벽한 사람들을 가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 이 땅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 우리 안에는 완벽한 리더가 거하고 계신다.

우리 자신의 흠들을 너머 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의 지도력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잘못된 것들을 잘하려 노력하는 것에 주의하라.

몇 년 전에 미국의 산업계를 일시적 유행처럼 휩쓸고 지나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 재공학" (re-engineering) 이라 불린 것이었다.

어떤 것들을 더 잘하려 노력하는 것은 항상 옳지만,

잘못된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과정을 바로 잡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기만과도 같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품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한 완벽한 과정을 가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들은 자기들의 메시지와 사역의 핵심이 올바른 길을 벗어났을 때에

그들의 모임들과 프로그램들을 더 흥미롭거나 더 좋게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해왔다.

나는 우리 모임들을 위한 좋은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에 해답이라고 대담하게 선포하는 책들을 종종 받아왔다.

물론 이 책들의 저자들은 항상 그들이 믿기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모임들을 위한 한 전략을 가지고 종결을 짓는다.

그들의 모임들을 조사해 본 후에 나는 그들이 심지어 그러한 방법들을 적용하면

그들의 모임들은 그들이 비난하는 종류의 모임들보다 훨씬 더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해 왔다.

나는 또한 교회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전형적인 방법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것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면서

관중을 위한 기독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다.

완벽한 형태의 모임을 갖는다 해서 모든 문제가 치료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머리 (the Head)되신 예수님께 알맞게 붙어있지 않으면

완벽한 형태의 모임을 가질지라도 그것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생명력이 없는 모임이 될 것이다.

과정을 바꾸는 일에 지나친 헌신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만들고 있는 생산품을 조사해야만 한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함정은 어제를 완벽하게 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어제의 실수로부터 배우기 위한 시간 만큼만 투자할 수 있다.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부흥들에 대하여 썼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연구했던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를 그 주제에 대한 귄위자들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데에 사용되어진 권위자는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그러한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과거의 위대한 부흥들을 중단시킨 것에 대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흥을 일으키는 데에 무엇이 사용되어 졌는지에 대한 어떤 통찰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는 데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현 목적들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들로부터 배우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 전진해야 한다.

당신이 저지른 과거의 실수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 홀이 되게 하지 마라.

대신에 바울 사도가 한 다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

빌0312. 마치 내가 이미 도달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그것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붙잡혔던 그것을 나 역시 붙잡을까 하여, 내가 좇아가느니라.

빌0313. 형제들아, 내 자신이 붙잡았다고 내가 여기지 않느니라, 대신에 뒤에 있는 그들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들의 것들에로 손을 앞으로 뻗치면서(에페크테이노마이: 손을 앞으로

뻗치다, 뻗다), 이 한가지 것을 내가 하느니라.

빌031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높은(아노: 위로, 꼭대기에, 위에, 가장자리에, 높이, 위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賞, 브라베이온:중재의 상급, 공중오락의 상, 상급, 보상)을 위한 과녁(표적,

목표)을 향해서 내가 밀고 나가느니라.

모닝스타코리아저널 4호의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제목의 릭조이너의 글중에서입니다